탈종교 진단 등 다룬 〈전법학연구〉 11호 발간



불광사 산하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지난 1월 30일 〈전법학연구〉 11호를 발간했다. 11호에는 제5회 전법학술상 수상논문 3편과 탈종교화의 현상을 분석하고 종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담은 4편의 논문 등 총 13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특히 제5회 전법학술상 수상작인 김진무(원광대 강사) 박사의 '청대(淸代) 팽제청(彭際淸)의 불교부흥과 거사불교', 조현봉(동국대 강사) 박사의 '협조적 전법교화 체제 활성화를 위한 재가 포교사 리더십에 관한 연구', 최원섭(동국대 외래강사) 박사의 '방송 매개 전법을 위한 불교 콘텐츠 구성 방향' 3편은 눈여겨 볼만 하다.

김진무 박사의 논문은 불교 침체기였던 중국 청나라 때 재가자 중심의 거사불교를 제창해 불교 부흥의 토대를 마련한 팽제청의 활동을 전법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조현봉 박사의 논문은 전법교화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스님과 재가 포교사의 협조적 전법교화 모델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11호부터 서평 코너가 신설되고 불광운동을 이끌어왔던 광덕스님의 삶과 전법행을 돌아보는 구술 인터뷰 등이 보완되면서 내용이 풍성해졌다. 신성민 기자

한국 · 일본 茶문화는 어떻게 같고 다르나

불교평론, 16일 열린논단 개최

한국과 일본의 차문화를 비교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는 2월 16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한국과 일본의 차문화 비교'를 주제로 제80회 열린논단을 개최한다. 이날 발제는 초의와 리큐로 대표되는 한국과 일본의 차문화를 비교 · 연구해온 전문가인 정영희 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 교수가 진행한다.

이날 열린논단은 한일양국의 차문화 비교를 통해 차에 깃든 불교정신을 살펴보고 차문화의 중흥이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논의한다.

(02)739-5781 신성민 기자

'허왕후 설화'는 어떻게 '실재적 역사'가 됐나

이광수 교수, 허왕후 설화 비판 연구서 발간



인도서 건너왔단 허왕후 설화
1천년 걸쳐 만든 허구적 신화
'국민 신화화' 과정 비판 · 분석

지자체 · 인도 교류서 활용하며
설화의 역사화, 확대재생산 중

가야불교를 이야기하며 제기되는 학설은 '남방불교도래설'이며, 이 중심에는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다는 허왕후가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그녀는 김수로왕에게 시집을 갔고, 태자 거등공을 낳았다. 가야불교를 긍정하는 한국불교계는 허왕후의 설화를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인정한다. 하지만, 이면에는 '설화를 하나의 상징체계 아닌 역사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타당한가'라는 의문도 존재한다.

역사의 국가주의화를 지적해 온 이광수 부산외대 인도학부 교수의 연구서 〈인도에서 온 허왕후, 그 만들어진 신화〉는 허왕후 설화에 대한 비판적 질문의 답을 던진다.

이 교수 주장의 핵심은 허왕후 설화에 담긴 민족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에 있다. 허왕후 설화는 시대를 거치면서 기본 뼈대에 새로운 살이 붙으면서 1000년 동안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삼국유사〉의 '금관성 파사석탑'이다. 이 교수는 허왕후가 파사석탑을 배에 싣고 왔다거나 허왕후의 오빠인 장유화상이 불교를 한반도에 들여왔다는 것도 모두 '날조된 신화'라고 강조한다. 당시 인도에서는 탑을 배에 탑재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고대에 돌무더기를 실은 배가 인도에서 한국까지 항해하기는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허왕후 설화 중 금관성 파사석탑은 '가락국기' 편찬 후부터 〈삼국유사〉가 편찬되던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주목할 점은 호계사 등 사찰에서 허왕후의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역사를 사실보다 해석으로 보는 불교사관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사찰에서 확장된 허왕후 신화는 조선시대 유림들의 가문정치와 만나며 허왕후를 실재적 역사 인물로 만든다. 이 교수는 "양천허씨가 신화 속의 허왕후를 실제 인물로 여겨 허왕후릉을 비정하고 족보와 연계시키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허왕후가 역사 속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허황후는 '보주태후'라는 시호를 받게 되고, 족보에까지 등장하게 된다.

저자가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허왕후 설화가 날조되고 역사적 인물이 되면서 현대에서까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설화의 확대 재생산에는 정치 · 지방자치단체 · 사이비 역사학자 · 언론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실제, 한국과 인도 교류가 허왕후 설화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인도 우파 민족주의 세력이 활용해 자신들의 역사 만들기에 일조하는 점은 '민족주의적 신화 만들기'가 보여주는 단적인 폐해다.

그러면서 저자는 오로지 '우리는 우수한 민족'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국민들의 역사적 몰이해와 무비판적 인용이 결국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을 만들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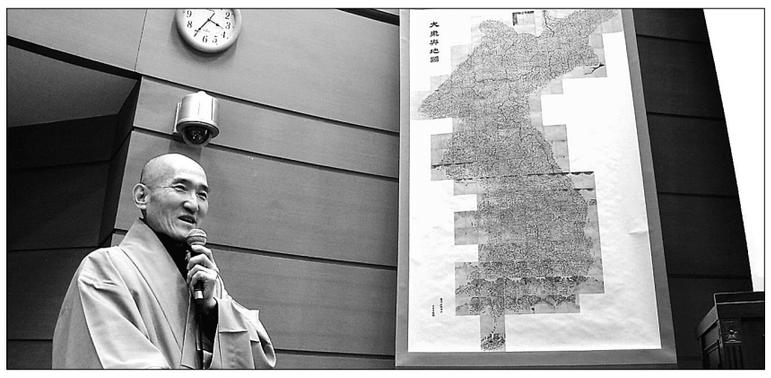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허왕후 신화는 민족주의와 국민 콤플렉스가 존재하는 한, 역사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분야 외에 관심을 쏟지 않거나 남이 한 연구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면서 의심의 눈초리와 비판력을 상실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살아서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화서 실재하는 역사적 사실을 추출하려면 매우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신화를 실제 역사로 이해하고 실재하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이는 명백한 역사왜곡이자 사이비 학문"이라고 성토했다. 신성민 기자

"대동여지도, 기존 지도·읍지 참고 제작"

불교사회정책硏 2월 6일 '대동여지도' 관련 세미나

지도 內 사찰 238개 집계 기존 지도들 오류 바로잡아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이 2월 6일 열린 세미나에서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대동여지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산자 김정호가 일생에 걸쳐 제작한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사찰 지명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소장 법응)은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대동여지도와 사찰지명'을 주제로 전문학자 초청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류명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과 김기혁 부산대 교수는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사찰 지명에 대해 고찰했다.

대표 발제한 류 연구원에 따르면 〈대동여지도〉에는 1만1000~1만3000여 개의 지명이 수록돼 있는 데 사찰의 경우 표기 한자를 기준으로 사(寺) 222개, 암(庵) 17개, 굴(屈) 2개, 대(臺) 1개 등 242개가 확인된다.

지역별로는 함경도 57개, 경상도 35개, 전라도 32개, 강원도 31개 순으로 수록되는 데, 이는 조선 중후기 사찰지도인 〈가람고〉와 비교했을 때 함경도와 강원도에 편중돼 사찰이 게재됐다. 또한 〈가람고〉에는 10개 이상의 사찰이 기록된 경주부, 양동대도호부, 평안도 순천군 등은 대동여지도에는 한 곳도 사찰이 나오지 않는다.

이에 대해 류 연구원은 "〈대동여지도〉는 당시 한성부를 포함한 335개 군현 중 115개 군현에만 사찰 지명이 기록돼 있다"면서 "함경도와 강원도에 사찰이 많이 수록된 것은 두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지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좀 더 많은 사찰 지명을 수록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류 연구원은 "〈대동여지도〉가 기존의 〈조선지도〉 · 〈해동여지도〉 · 〈청구도〉 등 기존에 편찬된 지도와 여러 종류의 읍지와 지리지를 참고해 간행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사례가 기존 지도에 나타난 오류들을 바로 잡고 있는 것이다. 실제 김정호는 〈청구도〉에 표기된 사찰지명을 〈대동여지도〉에 수용하면서 산지명을 사찰 지명으로, 사찰지명을 행정지명으로 수정했으며 중복 기록한 사찰은 삭제하기도 했다.

류 연구원은 "이 같은 사례들을 종합하면 〈대동여지도〉에 기록된 242개 사찰 중 출처가 분명한 곤양 고점사와 장흥 선암사, 중복 사찰 2곳을 제외하면 대략 238개 내외의 사찰이 수록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동여지도〉는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융섭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은 불교의 대승사상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남산 용장계 제3사지 석탑' 보물된다

문화재청, 7일 보물 지정예고… "전탑형 석탑 계보"



경주 남산 용장계 제3사지 삼층석탑〈사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경북 경주시에 있는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월 7일 밝혔다.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에 관한 문헌기록이 없어 용장계 지곡 삼층석탑이 언제 건립됐는지 확인할 만한 근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탑지 주변에서 '용(茸)' 자명을 비롯한 9점의 명문와(名文瓦)가 출토돼 용장사(茸長寺)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용장사지(탑상곡 제1사지)에는 삼층석탑과 마애불좌상, 석불좌상이 전해오며, 그 일대에 여러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은 무너져 있던 것을 2000~2001년까지 2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거쳐, 석탑 부재를 모아 2002년에 복원하였는데 노반석(露盤石) 아래의 부재는 남아있는 원 부재를 사용했다.

이 탑은 전탑형 석탑으로 8개의 커다란 사각석재를 기단으로 구축하고 옥개석(屋蓋石, 지붕돌)이 하나의 석재로 이루어졌으며 별다른 장엄장식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통일신라 석탑과는 다르다.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은 경주 서악동 삼층석탑(보물 제65호)과 경주 남산동 동삼층석탑(보물 제124호) 등과 함께 경주지역, 특히 남산 주변의 산록에서 만들어진 장소적인 특징도 있어 한국석탑에서 또 다른 '전탑형 석탑'의 계보를 이룬다.

경주지역에 유사한 형태로 남아있는 서악동 삼층석탑과 남산동 동삼층석탑이 9세기경으로 편년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용장계 지곡 석탑의 건립 시기 또한, 9세기경으로 편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파손되었으나 상륜부가 남아있고, 원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외관이 양호한 편이라는 점도 보물 지정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화재청은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출강 및 통신 2017학년도 제26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 교육 신입생 모집

탁월한 불교교육과 정명한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은 정통한 법사교육으로 26년의 전통과 신뢰로서 자랑과 긍지를 삼고 있습니다.

①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인증하는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 불학연구원과정(5년) · 불교석학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7년 2월 23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2017년 불교대학 50기 신입생모집[2년과정]

불교학과 3월 4일(토) 오후 5시 입학식

• 토요반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통신반 [CD 배송]

1년차	과목	1. 인도불교 2 중국·한국불교 3 법화경 4.대승불교와 밀교 5. 정토경 6.화엄경
	교수진	법산 경일스님(학장)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김경집교수 차차석교수 박종교수 종석스님 주명철교수 정성준교수 정엄스님
2년차	과목	7. 불교의 체계적 이해(아함경 1) 8 불교문화와 포교 9. 선불교 10. 근본불교(아함경 2) 11. 반야심경 12 유식불교
	교수진	이미령교수 최종석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김호귀교수 활안스님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 모집인원(불교학과) 120명(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각 40명)
■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2017년 1월 2일부터
■ 문의 02)732~1206~8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한불련) 연합회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 선·명상학과(위빠사나) [3월 9일(목) 개강] ● 불교다도학과 [3월 7일(화) 개강] ● 불교미술학과 [3월 9일(목) 개강]
● 한글불교의식반 [3월 11일(토) 개강] ● 전통범패의식반 [3월 8일(수) 개강]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T. 02)732-1206~8 F. 02)732-1207 http://www.dongsanbud.net